

광주 오피스 빌딩 투자수익률 전국 최저

경기침체로 공실늘고 자산가치 하락

국토부, 1분기 상업용 임대동향조사 결과

지난 1분기 광주지역 오피스(사무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매장을 빌딩의 투자수익률 역시 전국 최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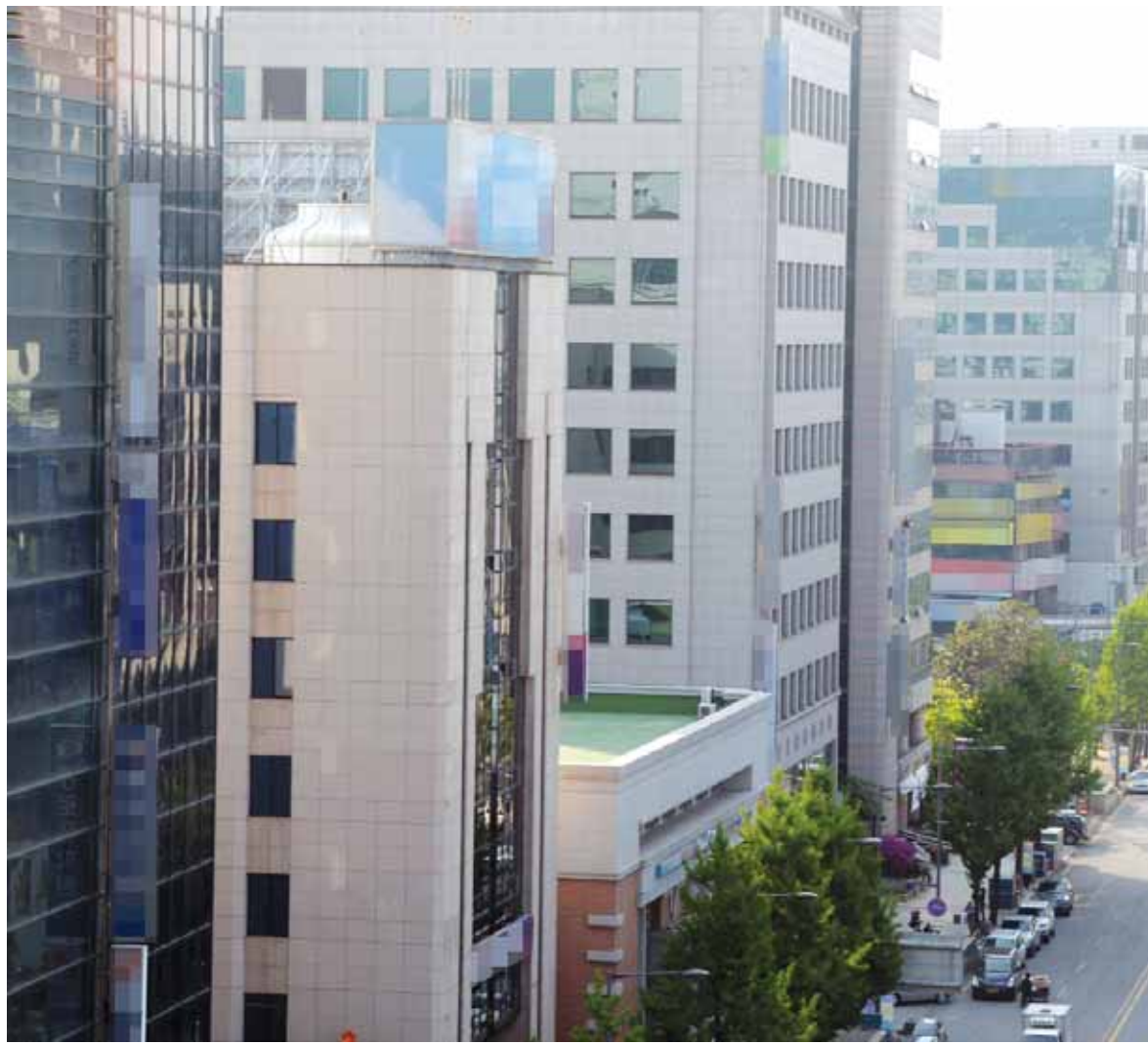
2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4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광주지역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은 0.52%로 전년 동기보다 0.73%포인트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국평균인 1.45%보다 0.93%포인트 낮았다.

구도심(금남로·충장로)과 신도심(상무지구) 모두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구도심은 1분기 기준 17.1%에 이르는 높은 공실률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0.23%에 그쳤다. 반면 공실률이 10.1% 수준인 신도심은 0.97%의 투자수익률을 보였다. 임대료도 차이를 보였다. 구도심의 경우 ㎡당 5만6000원이었지만 신도심은 8만원으로 2만4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은 나왔다. 안정성권인 금호지구에서 전분기 발생한 일시적 공실이 해소됐고, 상무지구에서 매달마다 신규 계약사태가 나오면서 임대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매장을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전분기보다 0.18%포인트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1.50%)보다 소폭 높은 1.52%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지역 매장을 빌딩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1.05%에 그쳐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분기보다 0.21%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일부 도시에 대형건물이 신축되며 공실률을 높인 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전남지역 매장을 빌딩의 공실률은 13.1%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6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인 업무용빌딩 표본 824동, 3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의 매장을 빌딩 2331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r-on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23일 광주의 구도심인 금남로의 오피스 빌딩 거리. 구도심은 올 1분기 기준 17.1%에 이르는 높은 공실률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0.23%에 그쳤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고교생도 창업지원금 받는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 3억원까지 가능

친권자 동의 있어야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고등학교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의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기보와 신보의 '청년 창업 보증'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여야 한다. 민법상 성인이 해당하는 만 19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3억원 이내에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대차금 및 시설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이런 나이 제한 때문에 창업 아이템이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창업은 생각지도 못했다. 특히, 최근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해당 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 등장으로 고등학생들의 창업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 같은 나이 제한이 고교생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고교생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고교생이 법률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법률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나이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기계화율 되레 후퇴

광주·전남 12곳 평균 55%로 전년보다 3% 하락

농산물 하역기계화율이 매년 증가하며 개선되는 추세지만 광주·전남도매시장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시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의 파렛트·지게차 등을 이용한 하역기계화 실태조사 결과 광주·전남도매시장 등 12개소의 국내산 농산물 하역기계화율은 평균 55.3%로 전년 대비 3.3%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광주·전남 지역 농산물 하역기계화율은 도매시장(범인 8개)의 경우 지난해 22.9%에서 10.2%로 하락한 반면 대형유통업체와 김치가공업체는 각각 100%와 55.8%를 기록, 소폭 개선됐다.

이처럼 유통물량증가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출하농가 규모가 영세해 동일등급 물량규모가 적어 파렛트 출하가 곤란하고 도매시장 노후화에 따른 공간협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가가 소량의 농산물을 부대에 담아 막무가내식으로 출하하는 경



도매시장에서 지게차로 농산물을 하역하고 있는 모습. <aT 제공>

우도 있어 예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T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파렛트 유통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공동선별·공동계산제, 파렛트 단위의 품목별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하고 산지·도매시장의 인프라 조성 등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역기계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편 aT는 농산물 유통시설 하역기계화 실태조사를 과일류 등 7개 부류(52품목)에 대해 전국 75개소(도매시장 33, 대형유통업체 22, 김치가공업체 20)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 조사 결과 도매시장이 9.1%, 대형유통업체와 김치가공업체는 각각 93.6%와 93.4%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과실류 62.2%, 과채류 32.1%, 조미채소류 23.4%, 엽근채류 18.6%, 콩류 18% 순이다.

국내 최초 펀드슈퍼마켓 오늘 개장

온라인서 900여개 판매

온라인에서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비교해싼 비용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첫 펀드슈퍼마켓이 24일 문을 연다. 23일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공개하고 24일부터 펀드슈퍼마켓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윤희 대표는 "우리는 은행과 우체국의 전국 3700개 지점에서 펀드슈퍼마켓 개장을 개설했다. 다음, 사이트(www.fundsupermarket.co.kr)에서 회원가입 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애초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지난날 펀드슈퍼마켓의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에서 연이어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해 전산 보안 시스템을 추가로 보강하고 의

부 검증을 받고자 출범 시기를 늦췄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온라인을 통해 모두 52개 자산운용사의 약 900개 펀드를 판매할 예정이며, 점차 판매하는 펀드 종류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서 펀드를 가입하면 선취수수료가 무료이며, 후취수수료와 판매보수도 싸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주식형펀드의 경우 시장 평균 판매보수가 0.89%지만, 펀드슈퍼마켓은 0.35%다. 펀드슈퍼마켓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후취수수료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장 평균(2.05%)보다 낮은 0.15% 내에서 적용된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 펀드 매매가 가능한 모바일 펀드슈퍼마켓과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에 대비한 IFA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시장 개장 한달 거래 부진에 고전

개장 한달을 맞은 금시장이 여전히 거래부진에 고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가격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합의 대량매매제도 도입과 적격수입 금리스트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의 대량매매제도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하려는 종목의 가격과 수량을 합의한 뒤 거래소에 거래 체결을 신청하는 방식의 매매 제도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 시장에서는 지난달 24일 개장 후 한달간 모두 78.7kg의 금이 거래됐다.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3.6kg씩 거래된 셈이다. 누적 거래대금은 35억2000만원이다. 민간 금거래소가 존립을 위한 최소 거래량을 일 평균 10kg으로 잡고 있고, 대형업체들은 하루 30~40kg을 거래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과다. 호가 제출 건수는 일 평균 325회였고, 하루에 138건의 거래가 체결됐다. /연합뉴스

미래를 개척하는
Global Leader

창사 62주년
www.hshi.co.kr

반잠수식 시추선 진수

기술로 창조하는 새로운 미래

세계 최대급 반잠수식 시추선을 건조해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